

19세기 영국 백신반대 부모의 시민 됨과 “매독 아이”*

김혜주**

초록 이 글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영국에서 출판된 백신반대 정기간행물과 팸플릿에 나타난 “매독 아이” 문제를 중심으로 백신반대 서사가 선천매독 서사를 전유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노동계급 정치에서 시민 됨이 부모 됨을 경유해 구성되는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영국에서는 영유아의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일련의 백신법 시행이 노동계급 부모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백신반대 운동은 의료전문화를 전문가집단과 결탁한 국가권력의 폭정으로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자연주의적 의료관을 바탕으로 한 의료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 자유의 추구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백신의무접종법의 대상인 아동의 신체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지 국가에게 있는지 여부였는데, 백신반대 서사는 노동계급 자녀의 건강을 그 부모가 수행하는 규범적 개인성의 일부로 귀속시키는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주도 공중보건에 저항할 근거를 마련한다. 백신반대 서사에서 국가권력은 건강한 아이를 매독에 노출시키는 의료 폭정의 주체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노동계급 시민 주체가 수행하는 영국적 규범성의 본질로 드러난다.

주제어 백신, 백신반대, 천연두, 노동계급, 개인, 시민, 양육권, 의료전문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만 12세가 될 때까지 B형간염, 소아마비, 홍역·볼거리·풍진(MMR), 수두, 폐렴구균 등을 포함해 최소 12가지 백신을 맞는다. 1957년에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제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주도 백신 접종은 초기 형태로,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시행된 일련의 백신의무접종법(Compulsory Vaccination Acts)이 있다. 1853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영유아의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부모를 반복해서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가 1798년 종두법을 널리 알린 논문 『천연두 백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Variolae Vaccinae*)를 출판하고 약 반세기 만의 일이다. 도로시 포터(Dorothy Porter)와 로이 포터(Roy Porter)가 지적한 대로 백신의무접종법은 영국 역사에서 공중보건의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노동인구의 신체와 건강을 적극적인 관리 및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국가의 생명정치(biopolitics)적 면모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¹

제너의 종두법 발명에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천연두 박멸 선언으로 이어지는 진보사관적 계몽서사로 보면, 백신의무접종법의 시행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혁신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대 영국인들에게 이 법안은 여러모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1853년 백신법으로 천연두 백신 접종이 최초로 의무화되면서 도시지역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백신반대 운동이 시작되었고, LSACV(the London Society for the Abolition of Compulsory Vaccination), NACVL(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League) 등의 시민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에서 출판한 정기간행물과 팸플릿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회 진보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부패한 의사집단

1 Dorothy Porter and Roy Porter (1988), "The Politics of Prevention: Anti-Vaccinationism and Public Health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Medical History* 32(3), p. 231.

의 음모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으로의 퇴행이었다.² 백신 부작용으로 여겨지던 여러 증상은 그 자체로도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였지만 국가가 강제 접종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권리, 즉 의료자유(*medical liberty*)를 침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백신반대론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백신반대 운동은 “관료주의의 오만과 그에 편승하는 의사 집단, 그리고 대개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문성에 맞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폴뿌리 대중운동”이었다.³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반봉건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이상의 추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백신반대 운동은 국가주도의 백신 접종만큼이나 계몽주의의 직접적인 세례를 받은 근대화의 한 양상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근대국가의 생명통치의 중요한 예로 백신의무접종법을 들 수 있다면, 백신반대 운동은 건강의 취득 조건으로서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셸 푸코(*Michelle Foucault*)가 말하는 생명통치의 또 다른 축, 곧 시민 개인의 자율규제(*self-discipline*)를 구현하는 대중운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도의 공중보건과 개인 자유의 대립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구도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국가 간 백신 수급 불균형만큼이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미권과 서유럽에서 특히 거셌던 백신 접종 거부 물결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개인의 주권 행사가 논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백신반대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천연두 백신반대 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2 Nadja Durbach (2005), *Bodily Matters: The Anti-Vaccination Movement in England, 1853-190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140-141.

3 “a grassroots, populist movement fighting for the rights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 hubris of official opinion and its allopathic medical allies and often, indeed, against expertise of any sort,” Peter Baldwin (2004), *Contagion and the State in Europe, 1830-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7.

그러나 천연두 백신반대 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의 양육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백신반대 운동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1853년 이전 영국의 천연두 백신 접종은 주로 군복무 혹은 정부 기관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포함한다거나 빈곤층에게 공짜로 백신을 제공하고 백신을 맞을 경우 구빈원(workhouse) 내의 강제노역을 감면해 주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장려되었다.⁴ 그러나 좀처럼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자 의료전문가 집단의 압력을 받은 영국의회는 3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1853년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법안의 목표는 영유아의 보편적 백신 접종이었지만, 실질적인 법안 행사에 있어서는 빈곤층과 노동계급이 대상이 되었다. 백신 의무화에 참여한 의료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노동계급 부모들이 밥벌이에 급급해 부모로서,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무지하고 무심한 부모들로부터 아이들과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다시 말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의해 촉발된 이 시기 영국의 백신 관련 담론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 주권 행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지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모의 양육권 행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했다. 나디아 더박(Nadja Durbach)이 말하듯, 19세기 영국 백신반대 운동이 보여 주는 자유주의 정치는 노동계급의 양육권(parental rights) 투쟁을 중심에 둔 “부모 됨의 정치”(the politics of parenthood)였던 셈이다.⁶

백신반대 운동이 일종의 양육권 투쟁이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영국의 노동계급 정치의 중요한 일면을 드러낸다. 조지 K 벨머(George K. Behlmer)나 리디아 머독(Lydia Murdoch) 등이 주장한 대로 19세기 전반에 걸쳐 핵가족과 양육권에 대한 이상은 영국인의 시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였

4 Baldwin (2004), pp. 255-256.

5 Durbach (2005), p. 23.

6 Durbach (2005), pp. 71-74.

다.⁷ 머독은 특히 노동계급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권리를 영국인으로서 누릴 자유의 당연한 일부로 여겼으며, 아동복지제도의 설립과 정비를 통해 아이를 빈곤층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대영제국에 기여할 시민으로 키워 내려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또한 투쟁했음을 밝힌다.⁸ 이처럼 부모 됨이 시민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는 점에서 백신반대 운동은 노동계급의 일원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국가 공동체의 적법한 구성원임을 증명하려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신반대론자들이 부모로서의 자유를 쟁점으로 삼았다고 해서 개인으로서의 자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신반대 운동의 목적은 여전히 국가의 “폭정”으로부터 “사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다.⁹ 19세기 중후반 영국의 노동계급 시민권 투쟁에서 부모로서의 자유와 개인으로서의 자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연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 개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백신반대 서사는 바로 이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백신반대 서사에서 개인 신체의 규범성은 자녀의 건강을 통해 증명되고, 개인의 건강은 다시 부모 신체의 규범성을 통해 증명된다. 다시 말해, 백신반대 서사가 재현하는 국가주도 공중보건과 개인의 의료 자유 사이의 대립에서 개인은 언제나 누군가의 부모,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특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야 개인이 될 수 있고 자식 역시 부모를 통해서야 개인이 될

7 George K. Behlmer (1999), *Friends of the Family: The English Home and Its Guardians, 1850-194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2, 4-14, p. 22; Lydia Murdoch (2007), *Imagined Orphans: Poor Families, Child Welfare, and Contested Citizenship in Lond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 7.

8 Murdoch (2007), pp. 6-8.

9 “tyranny,” “the personal rights and liberties of individuals,” John Gibbs (1854), *Our Medical Liberties, or The Personal Rights of the Subject, as Infringed by Recent and Proposed Legislation: Compromising Observations on the Compulsory Vaccination Act, the Medical Registration and Reform Bills, and the Maine Law*, London: Sotheran, Son, and Draper, p. 37.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혈연관계를 통한 정상가족으로의 귀속을 의료 자유를 누릴 자격 요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백신반대 서사는 노동계급 시민권 투쟁의 자유주의적 언어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영국적 정체성과 결합하는 방식을 탁월하게 드러낸다.

백신반대 서사에서 개인 됄과 부모 됄이 중첩되는 양상과 효과를 밝히기 위해 이 글은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매독 아이”(syphilitic child)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1850년대부터 1890년대 사이에 출판된 다수의 백신반대 정기간행물과 팸플릿이다. 당대의 백신반대론자들은 백신이 매독(syphilis), 림프절결핵(scrofula), 한센병(leprosy), 습진(eczema), 단독(erysipelas), 폐결핵(consumption) 등의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했는데, 짐작할 수 있듯이 그중에서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병인 매독이었다.¹⁰ 매독은 도덕적 해이와 직결되는 성병일 뿐만 아니라 당대 영국 사회에 크게 유행한 인종 퇴화(racial degeneration) 담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질병이기도 했다. 매독이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매독의 유행이 궁극적으로 영국 민족 및 국가의 퇴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생학적 불안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세기말에 작성된 다수의 의학 논문과 정부 보고서는 지배 계층의 시선에서 피지배 계층인 도시 빈민의 건강 상태와 도덕적 문란, 그리고 그에 따른 매독 유행을 우려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백신반대 서사는 이와 유사하게 매독을 둘러싼 우생학적 불안을 공유하지만, 이때 불안의 주체가 정부 관료나 의료 전문가, 혹은 저널리스트의 르포를 읽는 중산층 독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피지배 계층으로 정체화하는 백신반대론자라는 데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이 글은 백신반대 서사가 노동계급 시민권 투쟁의 맥락에서 매독서사를 전유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스스로를 억압의 대상으로 정체화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백신반대론자는 매독의 위협을 백신 및 백신으로

10 Durbach (2005), p. 97.

대표되는 국가 권력의 위협으로 치환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혈육을 보호하는 것을 영국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규범성의 일부로 인식한다.

1. 백신의 매독화와 매독의 백신화

백신반대 문헌에 나타난 매독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신이 어떻게 매독을 옮긴다고 생각되었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798년 처음 출간된 제너의 논문 『천연두 백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천연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¹ 첫 번째는 우두(cowpox)에 걸린 소로부터 직접 림프액을 추출해 사람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우두 바이러스는 천연두(smallpox)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치사율은 훨씬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안전하게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소가 아니라 사람, 즉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으로부터 림프액을 추출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접종하는 방식이다. 제너는 1798년의 논문에서 두 방식 모두 천연두에 대한 유효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한다. 두 방법 중 19세기 중후반까지 좀 더 널리 사용된 방법은 후자로, 이를 “팔에서 팔 방식”(arm-to-arm method)이라 부른다. 이 방법이 선호된 이유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살아 있는 백신 운반자, 즉 사람을 통해 백신 물질(vaccine matter)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팔에서 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공공백신사업소(public vaccination station)에서 아이에게 백신을 맞춘 부모는 8일 후에 아이를

11 Edward Jenner (1798), *An Inquiry into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Variolae Vaccinae, a Disease Discovered in Some of the Western Counties of England, Particularly Gloucestershire, and Known by the Name of the Cow Pox*, London: Sampson Low.

12 Lydia Murdoch (2015), “Carrying the Pox: The Use of Children and Ideals of Childhood in Early British and Imperial Campaigns against Smallpox,” *Journal of Social History* 48(3), pp. 517-518.

데리고 사업소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접종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백신을 놓는 의사는 아이의 팔에 올라온 수포에서 림프액을 추출해 다른 아이를 접종할 재료로 사용했다. 이때 접종은 때로는 바늘로, 때로는 팔의 상처를 서로 맞대는 다소 허술하고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³

짐작할 수 있듯이 팔과 팔을 직접 맞대고 체액을 교환하는 백신 접종 방식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수의 백신반대론자들은 이 방식을 통해 매독, 림프절결핵, 한센병, 습진, 단독, 폐결핵 등의 질병이 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명한 철학자이자 백신반대론자였던 프랜시스 뉴먼(Francis Newman)은 팔에서 팔 접종법을 통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지난 50년 동안 불결한 백신 물질이 아이에게서 아이에게로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의 건강치 못한 계층 수천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피로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한다.¹⁴ 백신반대 운동가이자 동종요법(homeopathy) 치료사였던 가스 윌킨슨(J. J. Garth Wilkinson) 역시 “백신은 공동체의 흠결을 피의 공산주의를 통해 섞어 버린다.”라고 비판한다.¹⁵ 이들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오히려 건강한 시민 개개인을 병들게 하는 일이었다.

물론 팔에서 팔 백신접종이 실제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살균 소독이 현대 의학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63년 영국인 의사 조세프 리스터(Joseph Lister)의 석탄산(carbolic acid) 사용

13 Durbach (2005), p. 127; Alison Bashford (2002), “Foreign Bodies: Vaccination, Contagion and Colon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Contagion: 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ed. by Alison Bashford and Claire Hooker), New York: Routledge, p. 37.

14 “the putrid matter has passed from child to child for 50 years, and takes up possibly any or every disease from the blood of scores of thousands in our unhealthy classes,” Francis Newman (1872), “Compulsory Vaccination Opposed to Science and Freedom,”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 3.

15 “vaccination mingles in a communism of blood the taints of the community,” J. J. Garth Wilkinson (1876), *On Human Science: Good and Evil, and on Divine Revelation*, London: J. Spiers, p. 29.

을 통해서였고, 1863년 이후에도 백신 접종 시에 살균 소독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백신사업소에서 감염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으리란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여겨지던 여러 질병 중에서도 유독 매독에 대한 공포가 컸다는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불안이 실질적인 위협과 느슨한 관계를 맺으며 담론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백신매독”(Vaccino-syphilis or vaccinal syphilis) 또는 “매독 접종”(invaccination of syphilis)과 같이 백신과 매독이 조합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성병은 어느 시대나 비유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 편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매독에 대한 인식은 인종 퇴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매독이 일종의 획득형질(acquired characteristic)로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유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도덕적 문란이 인종 퇴화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증명할 과학적 근거로 선천매독(hereditary syphilis)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분위기를 충실히 반영하여 백신반대론자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백신 제공자(vaccinifer or stock baby)로 선정되었을 때 건강한 아이에게 선천매독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적혈구나 백혈구 혹은 그 외의) 혈구가 백신에 사용되는 체액에 섞여 들어가면 매독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⁷ 이때 실제로 매독을 옮기는 매독균(*treponema pallidum*) 대신 매독 환자의 혈구(blood corpuscle)가 매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되는 것에 주

16 Elizabeth Lomax (1979), “Infantile Syphilis as an Example of Nineteenth-Century Belief i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4(1), pp. 23-39. 로맥스가 지적한 대로 실제로 매독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는다. 다만, 임신 중에 태반을 경유한 전파는 가능한데, 19세기 말 영국 대중은 대체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선천매독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17 “if blood corpuscles, red or white, or other formed material, enter into the fluid used for vaccination, there is a risk of syphilitic contagion,” “Vaccinal Syphilis” (1873), *Medical Times and Gazette*, reprinted in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 341.

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독균이 1905년이 되어서야 발견된 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백신반대론자들이 세균설(germ theory)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과학자들의 음모로 깊이 불신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무엇보다 혈액이 대중적 상상력에서 갖는 강력한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이 전제하는 의료관에서 백신은 (타인의) 혈액을 담은 오염원이다. 모니카 피에트르작프레이저(Monika Pietrzak-Franger)는 선천매독 담론에서 “매독 아이와 매독 정신병자 형상이 비유적으로 통용됨으로써 실제 매독을 앓는 사람의 고통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지적하는데, 백신반대 문헌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매독 아이의 형상 역시 실제 매독 환자의 고통을 재현한다기보다는 백신을 매독화하고 매독을 백신화하는 비유적 효과를 갖는다.¹⁸

2. 의료 폭정 vs. 자연 치유

이처럼 백신의 매독화가 이루어지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반대 서사에 서 전염병으로 재현되는 것은 천연두가 아닌 백신이며, 반면에 천연두는 크게 해롭지 않은 풍토병으로 그려진다. 당대 주류 의학이론에서 천연두는 유럽에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종종 동양에 뿌리를 둔 전염병으로 다루졌다. 전염병의 기원이 서유럽이 될 수 없다는 비과학적이고 서구중심적인 의료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백신반대 서사에서 천연두는 영국 도시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백신반대 운동가로 NACVL을 설립한 메리 흄로스리(Mary Hume-

18 “Because of their metaphorical currency, the figures of the syphilitic child and the syphilitic insane deflected popular attention from the actual suffering of syphilis victims,” Pietrzak-Franger (2017), p. 237.

19 Bashford (2002), p. 41.

Rothery)는 천연두가 “멀리서 이동해 와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이나 저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 날뛰는 사악한 신령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 또는 공동체, 혹은 둘 다가 뿌린 만큼 거두는 수확”이라고 말한다.²⁰ 뿐만 아니라 천연두는 심각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크게 해롭지 않은 “자연스러운”(natural) 상태로 그려진다. 흠로스리에 의하면 천연두가 야기하는 불쾌한 신체증상은 “피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몸 속의 선한 생명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치유 과정”의 일환이다.²¹ NACVL에서 출판한 정기간행물에서 천연두는 심지어 “자연 치유”이자 “축복”으로 불린다.²²

천연두에 대한 백신반대론자들의 미온적 태도는 전염병의 기원을 비유럽권으로 상정하는 주류 의료계의 인종주의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천연두를 대신해 백신을 인종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백신 반대 서사에서 백신은 비유럽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자주 비견된다. 백신 반대 팸플릿 『백신을 맞아 잃는 것들』(*What It Costs to be Vaccinated*)에서 백신은 “힌두교도들의 천연두 여신 숭배”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저자 조세프 콜린슨(Joseph Collinson)에 의하면 인도에서 행해지는 인두법은 “미신” 숭배의 일환이고, “백신 역시 인두법이 살짝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것일 뿐이지 [인도의] 이 관습과 매우 유사한” 행위이다.²³ 인두법은 우두가

20 “It is not an evil genius travelling from afar and pouncing down upon this or that city, or village, or district,” “It is a harvest springing up in localities where the seed has been sown for it, by individuals, or communities, or both,” Mary Hume-Rothery (1884), *What Small-Pox & Vaccination and the Vaccination Acts Really Are*, Leicester: E. Lamb, p. 4.

21 “impurities in the blood,” “a curative process set up by the beneficent life-power within,” Mary Hume-Rothery (1884), p. 5.

22 “Nature’s remedy,” “blessing,” W. G. Ward (1879), “A New View of Small-Pox: To the Editor of the *Times*,” *Times*, reprinted in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4, p. 80.

23 “the Indian of Hindoostan worshipping of a special deity, the goddess of small-pox,” “superstition,” “The practice in itself is quite akin to vaccination, for ... the vaccine mode is nothing more than a perpetuation, in another form, of the small-pox inoculation,” Joseph Collinson (1899), *What It Costs to Be Vaccinated: The Pains and*

아닌 천연두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너가 아닌 레이디 워틀리 몬태규(Lady Wortley Montagu)에 의해 오토만 제국에서 영국으로 18세기 초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두법과 구분된다. 그러나 “남자답고 영국적이며 전문적”이라 여겨지던 백신을 “여성적이고 이국적인 민간요법”으로 생각되던 인두법에 견주는 것은 백신반대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략 중 하나였다.²⁴ 콜린슨은 이어서 제너 역시 미신 신봉자에 불과하며 “글로스터 지방 낙농장 처녀들의 민간전승”을 그대로 믿고 백신을 만들었다며 백신을 비이성 및 우상숭배와 연관 짓는다.²⁵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고 백신이 우두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지극히 우연한 공통점 역시 백신반대론자들에게 자주 이용되어 백신의 동양성과 후진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²⁶

물론 백신의무접종법의 가장 “동양적”이고 후진적인 요소는 백신 접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개인 자유의] 억압은 도무지 영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²⁷ 에드먼드 프록터(Edmund Proctor)는 1873년 출간된 팸플릿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독극물이 든 란셋에 복종시켜야 한다면 대체 우리가 자랑하는 자유, 국민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²⁸ NAVCL 정기간행물에 실린 「용감한 어머니」(A Brave Mother)라는 꼭지에서 저자는 “이 자유로운 영국, 우리가 자유를 호호하는

Penalties of an Unjust Law, London: William Reeves, A. and H. B. Bonner, pp. 11-12.

24 “masculine, English, and expert,” “a feminine, foreign, folk practice,” Durbach (2005), p. 21.

25 “the legend of the Gloucester dairy-maids,” Collinson (1899), p. 12.

26 Joseph Towers (1878), “Papers on Natural History, No. II. The Sacred Cow,”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3, p. 58.

27 “compulsion does not suit England,” Gibbs (1854), p. 39.

28 “Where is our boasted freedom—where the liberty of the subject—when parents ... [are] compelled to submit their children to the poisoned lancet?,” Edmund Proctor (1873), *Important Facts on Vaccination Urgently Demanding Public Attention*, London: James Burns, p. 28.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강제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²⁹ 달리 말해 그런 일은 콜레라뿐만 아니라 전제정치가 만연한 동양 어딘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피지배계층의 신체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백신 의무접종법은 폭정 중에서도 “의료 폭정”(medical tyranny) 또는 “의료 전제주의”(medical despotism)의 소산으로 비판받았다. 19세기는 소위 말하는 “의료 전문화”(medical professionalization)의 시대로, 국가 인증 의사 시험,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 의학 학회 및 저널 등 오늘날 우리가 전문 의료 체계라고 여기는 제도가 영국에 정착한 시기다.³⁰ 의사 등록을 법제화하여 의사 자격증 제도를 정착시킨 1858년의 의료법(the 1858 Medical Act)이 보여 주듯이 공권력과의 연계는 의료 전문화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그중에서도 국가주도 백신 접종은 새로운 국가 의료(state medicine) 시스템의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실험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1853년 백신법의 통과는 빈곤층을 통치하는 데 있어 예방 의료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분과의 국가기여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인정받으려는 런던 전염병 학회(The Epidemiological Society of London)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였고, 이후 1858년 의사 출신 존 사이먼(John Simon)이 관료 출신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을 제치고 영국 정부의 공중보건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중보건의 의료 전문화가 시작된다.³¹ 물론 의료 전문가 집단이 국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모든 영국인들이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의사들이 공권력과의 연계 및 결탁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부당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29 “in free England, where we breathe of liberty,” Ellen W. Bell (1878), “A Brave Mother,” *National Independent*, reprinted in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3, p. 68.

30 Ian Waddington (1984), *The Medical Profess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Dublin: Gill and MacMillan; S. W. F. Holloway (1987), “The Orthodox Fringe: The Origins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Medical Fringe and Medical Orthodoxy, 1750-1850* (ed. by W. F. Bynum and Roy Porter), London: Croom Helm, pp. 129-157.

31 Durbach (2005), pp. 19-23.

이는 영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은 당시 흔히 공유되는 문제의식 중 하나였다.³² 그 비판의 최전선에 선 백신반대론자들은 백신의무접종법이 “국가가 허락한 정통 의료 성직자”가 중심이 된 “의사 통치”의 일환이라 주장했다.³³ 1854년 출간된 팸플릿 『우리의 의료 자유』(*Our Medical Liberties*)에 의하면 이는 “이 자유로운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의사 집단의 비천한 노예”로 만드는 악법이었다.³⁴

이때 생겨나는 이분법이 폭정이 건강을 해치며 자유가 건강을 담보한다는 생각이었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에 대한 논란을 피부로 겪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비록 직관적일지언정 언제나 들어맞는 원칙은 아니다. 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가해한 방식으로 우리가 갖는 기대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이 깨지기 쉬운 공식을 지탱하기 위해 백신반대론이 자주 소환하는 논리가 당시 여러 종류 대체의학에서 널리 공유되던 “자연치유”(vis medicatrix naturae) 개념이었다. 흠로스리에 의하면 천연두의 치료는 그저 피 속의 불순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의 작용을 돕는 것”이면 충분하며, 이는 “상식만 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³⁵ 이렇듯 자연치유가 상정하는 직관적인 의료관에서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몸 안에 갇든 생명력과 이를 끌어낼 개인의 일상적 노력이지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 따위가 아니었다. 19세기 대체의학 전반에서 보이는 이러한 “민주적 인식론”과 반엘리트주의는 스

32 John Chapman (1856), “Medical Despotism,” *Westminster Review* 65, pp. 530–562.

33 “State Endowed and Orthodox Medical Priesthood,” “doctor-craft,” *Diseased by Law: An Indictment of Compulsory Vaccination* (1884), London: E. W. Allen, pp. 2–3; William Hume-Rothery (1872), *Vaccination and the Vaccination Laws: A Physical Curse and a Class-Tyranny*, Manchester: W. Tolley, p. 29.

34 “intelligent people of this free realm,” “abject slaves to the medical profession,” Gibbs (1854), p. 5.

35 “help nature,” “Common sense immediately accepts the lesson,” Mary Hume-Rothery (1884), p. 6.

로를 평범한 개인이자 선량한 부모로 정체화하는 백신반대론자들에게 전문가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³⁶

3. “매독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백신반대 서사의 의료관은 이처럼 비싼 의료비나 엘리트 중심의 의학교육을 배척하는 민주적이고 대중친화적인 면모를 가졌지만, 동시에 그 극단적인 자연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는 원래 건강하다는 정상성을 전제로 했다. 그리고 이 정상성에 대한 강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백신반대 서사에서 어린아이의 몸이 이상화되는 방식이다.

리디아 머독과 트레이비스 라우(Travis Lau) 등의 최신 연구는 낭만주의적이고 센터멘털한 아동관이 백신반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힌다.³⁷ 특히 머독의 연구는 백신에 희생된 아이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이 백신반대 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이었음을 확인한다. 이는 아이의 삶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아동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노동계급 아이를 그와 같이 “애도할 만한” 아동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하는 계급 정치의 일환이기도 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자녀 양육과 애도에 관련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정치적 주체의 중요한 표지가

36 democratic epistemology Logie Barrow (2005), “Why Were Most Medical Heretics at Their Most Confident around the 1840s?,” *British Medicine in an Age of Reform* (ed. by Roger French and Andrew Wear), London: Routledge, p. 168.

37 Lydia Murdoch (2015), “Anti-Vaccination and the Politics of Grief for Children in Late Victorian England,” *Childhood, Youth and Emotions in Modern History: National, Colonial and Global Perspectives* (ed. by Stephanie Olse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242–260; Travis Lau (2020), “Inventing Edward Jenner: Historicizing Anti-Vaccination,” *The Routledge Companion to Health Humanities* (ed. by Paul Crawford), London: Routledge, pp. 120–133.

되었음을 백신반대 운동이 잘 보여 주는 것이다.³⁸ 머독은 이러한 경향성의 예시로 1885년 전국에서 2만 명이 모인 레스터(Leicester) 시의 백신반대 시위에 “백신을 맞지 않은 실제 아이들”이 “건강과 자유의 상징”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³⁹ 이와 마찬가지로 백신반대 서사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건강한 아이의 형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백신 접종 후의 끔찍한 상태와 대조시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백신을 맞기 전에는 흠잡을 데 없이 건강하고 피부가 깨끗한 아기였는데, 백신을 맞자마자 갑자기 발진이 돌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끔찍한 상태”라는 식이다.⁴⁰ 이러한 예화에서 백신 접종의 순간은 일종의 기독교적 타락의 순간으로, 자연스레 타고난 신체의 정상성이 폭압적 국가 권력에 의해 훼손당하는 순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백신반대 서사에서 이상화된 아동의 몸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앞서 소개한 매독 아이의 병들고 훼손된 몸이다.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헛갈린다는 데에 백신반대 서사의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혼동으로부터 백신반대 서사의 생산성이 비롯한다. 피에트르작프레이저가 이야기하는 대로 19세기 말쯤 되면 선천매독을 타고난 “매독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대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후다.⁴¹ 그러나 백신반대 문헌에 등장하는 매독 아이는 움푹 파진 코, 노인처럼 주글주글한 피부 등 전형적인 “매독 얼굴”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다음은 백신반대 잡지에 실린 「백신매독」(Vaccinal Syphilis)이라는 글의 일부로, 어떻게 공공백신사업소를 통

38 Murdoch (2015), pp. 244-245.

39 “living unvaccinated children,” “displays of health and symbols of liberty,” Murdoch (2015), p. 255.

40 “It was as fine and healthy and clean-skinned a baby as ever was seen before the vaccination, but very soon after the operation it began to break out, and now is in a dreadful state,” J. H. Nakivell (1872), “Bad Effects of Vaccination,”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p. 204.

41 “syphilitic physiognomy,” Pietrzak-Franger (2017), pp. 243-246.

해 매독이 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백신제공자로 선택된 아이는 나중에 항문 주변에 콘딜로마가 발현하긴 했지만 백신을 맞을 당시에는 여러 면에서 건강의 화신으로 보였다. 현행법 상으로 영아는 만 삼 개월이 되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만 육 개월이나 팔 개월, 혹은 그 후에도 코 훌쩍임 외에는 선천매독의 증상이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백신 접종 당시에는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추후 선천적 흡결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로부터 [채취한 림프액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접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The child selected [as a stock baby] was in many respects the picture of health at the time of vaccination, though subsequently condylomata were developed round its anus. As the law stands, infants must be vaccinated before they are three months old; but, apart from snuffles, it is quite possible there may be no manifestation of constitutional syphilis till they are six or eight months old, or even it may be later. It is not fair to subject healthy infants to the risk of vaccination from others, which, though healthy at the time, may subsequently show signs of inherited taint.⁴²

이 글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가 매독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백신 제공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아이가 백신을 맞을 당시 “건강의 화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백신 접종용 림프액을 제공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매독의 한 증상인 항문 주변의 콘딜로마(condyloma)를 보이기 시작한다. 논문의 저자는 선천매독을 가진 영아의 경우 6개월에서 8개월 후에나 그 증상이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3달 이내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현행규정은 건강한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42 “Vaccinal Syphilis” (1873), p. 341.

고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매독 아이의 문제는 타고난 흠결 그 자체보다는 그 흠결을 제때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매독 아이가 건강한 아이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게 섞여 있기 때문에 팔에서 팔 접촉을 통해 이들 사이에 체액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독 아이의 문제가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다가 백신 접종 이후에 매독 증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를 건강한 아이가 백신을 통해 매독에 노출된 케이스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앞서 “흠잡을 데 없이 건강하고 피부가 깨끗한 아기”의 경우, 저자는 아기가 백신 때문에 피부 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예시에서 “건강의 화신”이던 아기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 피부 질환이 생긴 것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 흠결” 때문이다. 건강한 아이나 매독을 갖고 태어난 아이나 마찬가지로 멀쩡해 보이다가 백신 접종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면, 그 증상이 “백신매독”(vaccinal syphilis) 탓인지 “선천매독”(hereditary syphilis) 탓인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백신반대 서사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신반대 서사를 구성하는 여러 전제가 이 질문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백신매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몇 가지 사실 중 첫 번째로 만 46세의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홍채염 증상으로 무어필즈 안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이 홍채염이 이차 발진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아 매독 감염에서 기인한다고 바로 진단을 내렸다. 그는 내원 석 달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제공자는 8개월 된 아기였다. 이 아기는 접종 당시 허치슨 씨가 보았을 때 건강해 보였고 콧대가 내려앉은 것 말고 다른 매독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아기는 3남매 중 셋째였고, 첫째와 둘째는 유아기에 사망하였다. 이 아기로부터 백신을 제공 받은 열두 명 중 위에 언급한 남성만이 매독에 감염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그는 열두 명 중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이 때문에 순수한 림프액이 아니라 혈관에서 새어 나온 혈액이나 혈청이 섞인 림프액을 접종받은 것으로 보인다.

The first ... series of facts, starts from the case of a well-conducted married man, aged 46, who applied at the Moorfields Ophthalmic Hospital on account of iritis, which was at once detected as syphilitic, as it was accompanied with secondary rash, &c. He had been vaccinated three months previously; ... The vaccinifer was a baby, who, when seen by Mr. Hutchinson (at eight months old), looked healthy, and showed no signs of syphilis except a sunken bridge of the nose: it was a third child, the first two having died in infancy. It is remarkable that of twelve persons vaccinated from the same baby, only the man above-mentioned suffered any harm: it is believed that he was the last of the twelve, and so got, not pure lymph, but either blood or serum newly exuded from the vessels.⁴³

여기서 피해자로 지칭되는 인물은 마흔여섯 살 남성으로, 8개월 된 아기로 부터 백신 림프를 제공받아 백신을 맞았다. 저자는 이 남성이 매독에 감염된 이유가 바로 이 팔에서 팔 접종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백신을 제공한 영아는 백신 접종 당시 건강해 보이긴 했지만 매독 증상 중 하나인 내려앉은 콧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형제자매가 영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선천매독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아기로 부터 백신 림프를 전달받은 열두 명의 사람 중 오직 이 남성 한 명만이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은 의심 많은 독자로 하여금 그가 정말로 이 아기에게서 매독을 옮긴 것이 맞는지, 설사 이 아기가 매독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성인 남성인 그가 다른 곳에서 매독을 옮겨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43 “Vaccinal Syphilis” (1873), p. 357.

한다. 그러나 저자는 망설임 없이 매독의 출처가 그 아기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인용문의 첫 문장에 있다. 남자가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린아이가 백신을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의 예시는 백신반대 서사에서 언제 어떻게 매독이 “백신매독”이 되는지를 드러낸다.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이라는 구절은 백신 접종자가 가정이 있는 남성으로서 올바른 젠더 규범을 수행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자기 가정이 곧 자기 성체인 영국 남성”이라는 신호를 보낸다.⁴⁴ 국가 차원에서 공중보건 사업에 관여하는 의료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는 전염병을 옮고 옮기는 도시 군중의 한 명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백신사업으로 보내져야 마땅하지만, 백신반대론자의 관점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규율을 수행해 온 책임감 있는 시민이며 따라서 천연두와 매독 같은 질병 역시 혼자 힘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1872년에 출간된 백신반대 정기간행물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식단을 조절하고, 자주 씻는 등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한 자랑스러운 “시민”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⁴⁵ 천연두의 경우가 이러하듯, 하물며 성병인 매독은 말할 것도 없다. 백신반대 세계관에서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이 매독에 걸릴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백신 접종을 통해서뿐이며, 이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부모가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인 한, 매독에 걸린 아이는 선천매독이 아닌 백신매독에 감염된 것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는 매독 아이의 부모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은 백신을 맞은 아이가 죽은 후 그 진상규명을 위

44 “an Englishman’s home is his castle,” Gibbs (1854), p. 32.

45 “Small-pox, I believe, is caused by neglecting the laws of health, that is—by breathing foul air, eating and drinking impure and stimulating food, keeping the pores of the skin clogged with dirt, &c. By strict attention to cleanliness my family have escaped the small-pox,” “A Citizen’s View of Vaccination” (1872),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 114.

해 열린 심문을 백신반대 정기간행물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아래 인용 부분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 의사 캐버너(Dr. Kavanaugh)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LSACV의 자문요원으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를 대변하여 심문에 참여한 코리 그랜트(Corrie Grant)다.

그랜트 씨에 의한 반대 심문: 필요한 예방 조치는 다 취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이러스를 제공하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일부 맞습니까?

증인: 언제나 문진을 하고 간단한 진찰을 합니다.

백신을 제공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결혼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다른 아이가 있는지는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무례한 질문이니까요.

자자체 위원회에서 내린 공문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Cross-examined by Mr. Grant: I understand you to say you took all proper precautions. Is it a rule with you to ascertain the state of the child from whom you take virus?

Witness: I invariably ask questions and make a superficial examination.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father of the vaccinifer? No, we do not ask the family history. We judge from the appearance of the children, and the parent.

Did you ask the mother of the vaccinifer if she was married?—Certainly not.

Nor if she had any other child?—No.

Why did you not ask if she was married?—Because it would have been offensive.

Do not the Local Government Board instructions order you to do so?

—Not that I am aware of.⁴⁶

이 심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백신 제공자의 어머니가 혹시 미혼은 아닌지, 어머니의 혼인 여부를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가 확인했는지 여부다. 백신반대 단체에서 파견된 그랜트는 미혼모의 경우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해 매독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태어난 아이 또한 선천매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제하고 심문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기록에서 그랜트는 비록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질환으로 밝혀졌지만 캐버너의 “무책임한 백신 접종”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알기로는 사망한 아이에게 백신을 제공한 아이의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들었다”고 다시 한 번 백신 제공자의 어머니가 미혼임을 강조한다.⁴⁷ 백신을 제공한 아이가 사생아라는 사실은 그에게 죽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부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정황 증거인 셈이다. 그랜트가 보여 주는 논리에서 미혼모는 앞서 등장한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의 반대항으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녀에게 건강이 아닌 불(不)건강을 물려주는 부모다. 그녀의 아이로부터 백신을 제공받은 아이가 사망하였다면, 이는 필시 그녀의 매독인자가 백신 접종을 통해 그 아이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두 예시는 앞서 필자가 던진 질문, 즉 백신을 맞고 매독에 걸린 아이가 “백신매독”을 앓고 있는 것인지 “선천매독”을 앓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46 “The Deptford Cases” (1883), *The Vaccination Inquirer* 5, pp. 141–42.

47 “careless vaccination,” “I am told that the mother of the child from whom the deceased was vaccinated was an unmarried woman,” “The Deptford Cases” (1883), p. 144.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백신반대론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예시에서 이 질문은 백신 제공자의 어머니가 미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랜트의 질문으로 변주된다. 다시 말해, 누가 매독 아이인지에 대한 질문이 부모의 사회적 규범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처럼 백신반대 서사에서 백신반대론자 부모 신체의 규범성은 온전하게 자녀 신체의 건강으로 재생산되며, 동시에 자녀 신체의 건강은 부모 신체의 규범성의 증거가 된다. 도덕성이 건강으로, 부도덕함이 불건강으로 온전히 되물림 되는 이 재생산의 구조가 교란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행실 바른 기혼 남성”과 미혼모의 아이를 공공백신사업소에 몰아넣고 체액을 교환시킬 때이다. 백신반대 서사는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가의 횡포로부터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규범성, 즉 시민성의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한다.

4.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양육권 행사와 영국 시민 되기

주류 담론에서 선천매독 확산과 인종 퇴화에 대한 불안이 결합할 때, 그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 균중이며 그 우려의 주체가 되는 것은 도시의 통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1904년 보어 전쟁(the Boer War)에서의 뼈아픈 패배 이후 영국 정부는 징집 대상이 되는 국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Physical Deterioration)를 구성한다. 이때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찰스 부스(Charles Booth)와 같은 자선사업가들, 다수의 의사와 의료 관료들, 구세군(Salvation Army) 사령관, 군 간부 등이었다.⁴⁸ 이들의 보

48 Joanne Townsend (2017), “Marriage, Motherhood and the Future of the Race: Syphilis in Late-Victorian and Edwardian Britain,” *Syphilis and Subjectivity: From the Victorians to the Present* (ed. by Kari Nixon and Lorenzo Servitje), London: Palgrave MacMillan, p. 71.

고서는 매독을 인종 퇴화의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고 그 확산 이유로 하층민들이 “매독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며”, 따라서 노동계층 매독 환자들의 행동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꼽는다.⁴⁹ 이들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지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이후로 만나는 모든 성관계 상대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자녀에게도 매독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⁵⁰ 따라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르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다음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하층민의 신체와 건강을 특히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⁵¹

백신반대 서사가 보여주는 “백신의 매독화”는 이 보고서의 관점을 일부 공유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백신사업소는 충분히 위험한 곳이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따로 의사를 불러 집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해 공짜로, 그리고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는 공공백신사업소는 출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이 체액을 주고받는 곳이다. 이들 중에는 19세기 영국 사회가 반시민(anti-citizen)으로 규정한 빈민, 범죄자, 창녀, 정신병자,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의 범주가 위 보고서에 규정하는 매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구의 범주와 겹칠 수 있으리란 짐작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와 백신반대 서사의 핵심적인 차이는 백신반대 서사에서 매독 확산을 걱정하는 주체는 부처 간 협력 위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자선사업가나 의료전문가가 아니라 보고서에서 진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 노동계급의 일원인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이라는 데 있다. 이

49 “do not seem to know the dangers of syphilis,” Townsend (2017), p. 73에서 재인용.

50 Townsend (2017), p. 73.

51 “Surveillance of the health and the bodies of the lower classes in particular,” Townsend (2017), p. 71.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은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는 매독을 옮기고 옮기는 도시 군중과 거리를 두며 자기 신체의 규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2차 백신의무접종법이 시행된 1867년은 다수의 노동계급 남성에게 선거권을 확장한 두 번째 선거법 개정안(Second Reform Act)이 시행된 해이기도 했는데, 이 시기의 선거권 확장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노동계급 남성이 “독립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개인인지 아니면 쉽게 경도되고 오염될 수 있는 군중(mob)에 속하는지 여부였다.⁵²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을 통해 노동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고 군중화를 예방하려는 정책이었지만, 이미 정치적 자의식이 싹튼 노동계급 남성의 입장에서 이는 책임감 있는 시민인 그를 “미혼모”로 대표되는 수준 낮은 군중과 하나로 묶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것이 “행실 바른 기혼 남성”의 두 번째 과제다. 그가 추구하는 신체의 규범성, 즉 시민성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함으로써 완성된다. 백신강제법과 같은 “끔찍한 폭정”에 대한 “모든 정직한 시민의 의무는 그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백신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⁵³ 바로 이 저항이 그가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통치할 줄 아는 자율적인 영국 시민이라는 궁극적인 증거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저항은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닌 자기 자녀의 몸을 국가주도의 백신 접종으로부터 지키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공공백신사업소가 하는 일은 그 지역 모든 어린아이들의 몸을 하나로 묶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팔에서 팔 접종을 통해 실제로 체액을 주고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 공동체 구성

52 “independent and respectable,” Keith McClelland (2000), “England’s Greatness, the Working Man,” *Defining the Victorian Nation: Class, Race, Gender and the Reform Act of 1867* (ed. by Catherine Hall, Keith McClelland, and Jane Renda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1-77, p. 118.

53 “monstrous tyranny,” “it is the duty of every honest citizen to disobey and resist,” Proctor (1873), p. 28.

원 모두가 백신을 맞을 때 공동체 전체의 면역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된다는 집단 면역의 원리는 인간 신체의 비(非)개인성, 혹은 군집성에 대한 증거다. 그러나 백신반대 부모는 자식의 몸을 이 사회적 몸의 일부로 귀속시키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혈연에 기반한 핵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체의 규범성의 증거로 소유하려 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부모는 자기 신체의 규범성을 온전히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규범성의 현현으로서 아이의 건강한 신체는 다시 이 아이가 국가 의료의 개입을 필요치 않는 자율적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개인으로 완성되며,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만 개인으로 태어난다. 백신반대 서사를 지탱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종의 자기지시적 순환 구조다. 개인 됨이 부모 됨을 경유해 형성되는 이 순환 구조에서 노동계급 남성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양육권 행사를 통해 자율적 개인으로, 영국 시민으로 완성된다.

참고문헌

자료

- “A Citizen’s View of Vaccination” (1872),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 114.
- Bell, Ellen W. (1878), “A Brave Mother,” *National Independent*, reprinted in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3, p. 68.
- Chapman, John (1856), “Medical Despotism,” *Westminster Review* 65, pp. 530-562.
- Collinson, Joseph (1899), *What It Costs to Be Vaccinated: The Pains and Penalties of an Unjust Law*, London: William Reeves, A. and H. B. Bonner.
- Diseased by Law: An Indictment of Compulsory Vaccination* (1884), London: E. W. Allen.
- Gibbs, John (1854), *Our Medical Liberties, or The Personal Rights of the Subject, as Infringed by Recent and Proposed Legislation: Compromising Observations on the Compulsory Vaccination Act, the Medical Registration and Reform Bills, and the Maine Law*, London: Sotheran, Son, and Draper.
- Hume-Rothery, Mary (1884), *What Small-Pox & Vaccination and the Vaccination Acts Really Are*, Leicester: E. Lamb.

- Hume-Rothery, William (1872), *Vaccination and the Vaccination Laws: A Physical Curse and a Class-Tyranny*, Manchester: W. Tolley.
- Jenner, Edward (1798), *An Inquiry into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Variolae Vaccinae, a Disease Discovered in Some of the Western Counties of England, Particularly Gloucestershire, and Known by the Name of the Cow Pox*, London: Sampson Low.
- Nakivell, J. H. (1872), “Bad Effects of Vaccination,”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 204.
- Newman, Francis (1872), “Compulsory Vaccination Opposed to Science and Freedom,” *The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p. 3-7.
- Procter, Edmund (1873), *Important Facts on Vaccination Urgently Demanding Public Attention*, London : James Burns.
- “The Deptford Cases” (1883), *The Vaccination Inquirer* 5, pp. 141-144.
- Towers, Joseph (1878), “Papers on Natural History, No. II. The Sacred Cow,”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3, p. 58.
- “Vaccinal Syphilis” (1873), *Medical Times and Gazette*, reprinted in *Anti-Vaccinator and Public Health Journal* 1, pp. 340-341.
- Ward, W. G. (1879), “A New View of Small-Pox: To the Editor of the *Times*,” *Times*, reprinted in *National Anti-Compulsory Vaccination Reporter* 4, p. 80.
- Wilkinson, J. J. Garth (1876), *On Human Science: Good and Evil, and on Divine Revelation*, London: J. Spiers.

논저

- Baldwin, Peter (2004), *Contagion and the State in Europe, 1830-19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ow, Logie (2005), “Why Were Most Medical Heretics at Their Most Confident around the 1840s?,” *British Medicine in an Age of Reform* (ed. by Roger French and Andrew Wear), London: Routledge, pp. 164-183.
- Bashford, Alison (2002), “Foreign Bodies: Vaccination, Contagion and Colon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Contagion: 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ed. by Alison Bashford and Claire Hooker), New York: Routledge, pp. 39-60.
- Behlmer, George K. (1999), *Friends of the Family: The English Home and Its Guardians, 1850-194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urbach, Nadja (2005), *Bodily Matters: The Anti-Vaccination Movement in England, 1853-190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olloway, S. W. F. (1987), “The Orthodox Fringe: The Origins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Medical Fringe and Medical Orthodoxy, 1750-1850* (ed. by W. F. Bynum and Roy Porter), London: Croom Helm, pp. 129-157.

- Lau, Travis (2020), "Inventing Edward Jenner: Historicizing Anti-Vaccination," *The Routledge Companion to Health Humanities* (ed. by Paul Crawford), London: Routledge, pp. 120-133.
- Lomax, Elizabeth (1979), "Infantile Syphilis as an Example of Nineteenth-Century Belief in the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4(1), pp. 23-39.
- McClelland, Keith (2000), "England's Greatness, the Working Man," *Defining the Victorian Nation: Class, Race, Gender and the Reform Act of 1867* (ed. by Catherine Hall, Keith McClelland, and Jane Renda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1-118.
- Murdoch, Lydia (2015), "Anti-Vaccination and the Politics of Grief for Children in Late Victorian England," *Childhood, Youth and Emotions in Modern History: National, Colonial and Global Perspectives* (ed. by Stephanie Olse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242-260.
- Murdoch, Lydia (2007), *Imagined Orphans: Poor Families, Child Welfare, and Contested Citizenship in Lond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Pietrzak-Franger, Monika (2017), *Syphilis in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 Porter, Dorothy and Roy Porter (1988), "The Politics of Prevention: Anti-Vaccinationism and Public Health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Medical History* 32(3), pp. 231-252.
- Townsend, Joanne (2017), "Marriage, Motherhood and the Future of the Race: Syphilis in Late-Victorian and Edwardian Britain," *Syphilis and Subjectivity: From the Victorians to the Present* (ed. by Kari Nixon and Lorenzo Servitje),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67-90.
- Waddington, Ian (1984), *The Medical Profess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Dublin: Gill and MacMillan.

ABSTRACT

Anti-Vaccination Parent's
Citizenship and the
“Syphilitic Child”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Kim, Haejoo*

This article examines the anti-vaccination periodicals and pamphlets published in England from the 1850s to the 1890s with a focus on the figure of the “syphilitic child.” In this period, a fierce anti-vaccination movement centering working-class parents emerged in England in response to a series of Vaccination Acts that made smallpox vaccines mandatory for newborns. Criticizing medical professionalization as medical tyranny and monopoly, anti-vaccination parents believed in the notion of natural health and preferred what were understood as natural healing methods, a penchant suggestive of their political pursuit for self-sufficient individuality. Anti-vaccination literature often blamed vaccines for spreading hereditary syphilis,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that also provoked eugenic anxiety over racial degeneration in this period. For the urban working class with increasing political consciousness, a potential exposure to syphilis by mixing bodily fluids in a public vaccination station suggested a deterioration into the unclean and helpless urban masses--“the great unwashed”--or, the anti-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izen.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he notion of hereditary syphilis is appropriated in anti-vaccination literature, this article reveals anti-vaccinationism's self-referential rhetorical structure, a structure in which the parent's individual integrity guarantees the child's health and the child's health proves the parent's individual integrity in turn. I argue that this self-referential logic in tension with state power sustains the anti-vaccination parent's political agency.

Keywords Vaccine, Anti-vaccination, Smallpox, Working Class, Individuality, Citizenship, Parental Rights, Medical Professionalization